

2023년 국제 현충일 특별 집회 표어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얻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계속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속부분들과 하나 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가 뜻을 세우고 행하게 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혼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바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체험하기를 열망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틀인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기를 열망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룸으로 뛰어난 부활에 이르러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전진하시는 유일한 길이고,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시는 유일한 길이며,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고,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유일한 길이다.

2023년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국제 현충일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빌립보서에 계시된 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림

메시지 1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킴으로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하여 그리스도를 얻음

성경: 마 3:17, 12:18, 16:24, 막 9:7-8, 고후 2:10, 갈 1:15상, 16상, 골 2:16-17

- I. 하나님의 마음이 갈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이다 — 마 3:17, 12:18, 17:5, 갈 1:15상, 16상.
- A. 하나님의 마음이 갈망하는 것은 우주 안의 모든 사람과 모든 일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아신 그분 아래 통일될 때 완전한 평화와 조화가 있을 것이고, 우주 안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표현할 것이다 — 골 1:15-19, 3:10-11, 엡 1:10, 22-23, 4:15-16, 사 55:11-13.
- B. 우리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한다. 우리의 일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있으며,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있다 — 사 43:7, 고후 4:5, 고전 15:58, 요 17:23, 엡 1:23, 3:19-21.
- C. 그리스도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의 실재이다 — 골 2:16-17.
1.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그리신 거대한 한 폭의 그림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 골 1:15-17, 시 19:1-6, 롬 1:20, 히 11:3.
 2.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매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과 안식을 가지며, 매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체험하고, 일 년 내내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과 누림이다 — 골 2:16-18상.
- D.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자신 외에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내적으로 보고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갖고 계신 목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 고전 1:9.
1.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숨(요 20:22), 생명의 물(4:14, 7:37-39), 생명의 떡(6:35, 48), 생명의 빛(1:4, 8:12), 생명의 거처(14:23, 15:1, 4-5)이다.
 2. 우리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각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번식시킴으로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 골 1:9-10.
 3.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정도까지, 즉 우리의 큰 기쁨과 우리의 지극히 큰 보상이 되시는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 엡 3:16-19, 시 43:4상, 창 15:1, 요 15:11, 롬 14:17, 빌 3:14.
 4.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영이심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이 중점을 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단지 객관적인 교리에 불과할 것이다 — 고전 15:45하, 고후 3:17-4:1, 딤후 4:22, 고전 6:17, 요 4:24.
 5. 그리스도는 또한 말씀이다.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접촉할 때 그분의 말씀은 영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영이 될 때 그 영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께 완전히 점유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분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신다 — 엡 6:17-18, 요 5:39-40, 6:63.

- E.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비결을 배울 때 주님의 회복에 신실할 것이다 — 막 9:7-8, 행 26:19, 22, 고전 1:2, 9-10, 2:9-10, 고후 2:10, 딤후 4:9-18, 빌 1:19-21상.
1. 우리는 그분 이외의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일에 집중하지 말고 그분께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심으로 세우신 그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그럴 때 믿는 이들 사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 고전 1:9, 계 2:4-5, 골 1:17하, 18하.
 2. 어떤 사람이 주님의 회복을 떠난다는 것은 그가 주님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 안전히 지켜지고 분열을 일으키는 데서 보호받을지의 여부는 우리가 본 이상에 달려 있다.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에만 우리는 분열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3.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중심과 선택과 선호와 입맛과 누림이신 그리스도만 주의한다면, 이것에 의해 우리는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주님의 회복 안의 교회 안에 보존될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망하거나 빛나가 주님의 회복을 저버릴 것이다.

II. 우리는 반드시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해야 한다.

- A.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생활로 취했다 — 빌 1:21상.
- B.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표현으로 취했다 — 빌 1:20.
- C.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의 생각으로 취했다 — 빌 2:5.
- D.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신이 살아 낸 의로 취했다 — 빌 3:9.
- E.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탁월한 것으로 여겼다 — 빌 3:8.
- F.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쫓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쫓대로 취했다 — 빌 3:13-14.
- G. “형제님들,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장중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수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야 하며, 그리고 어떤 미덕과 어떤 칭찬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미덕들로 취했다 — 빌 4:8.
- H.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능력으로 취하여 그의 품위 있는 생활로 살아 내었다 — 빌 4:13.
- I.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비결로 취했다 — 빌 4:11-12, 비교 4-7절.
- J. “우리의 국적은 하늘들에 있으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기대로 취했다 — 빌 3:20-21.

III. 우리는 다음의 방면들에 따라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얻으시도록 한다(빌 3:12, 비교 합 1:1).

- A.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감지하도록 한다 — 요 20:22, 출 33:11상, 14.
 - 1.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곧 우리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만을 두려워해야 한다 — 고후 2:10, 비교 엡 4:30, 살전 5:19.
 - 2. “그분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살어나게 하시고 / 제삼 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되리라.”(호 6:2) — 셋째 날의 실재는 부흥의 실재를 가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격, 임재이다(합 3:2).
- B.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밝고 분명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한다 — 계 22:1, 요 1:4, 8:12, 겔 1:22, 26.
- C.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이신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공급받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한다 — 고전 10:3-4, 요 6:57, 4:10, 14, 24, 고전 12:3하, 13.
- D.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자라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한다 — 골 2:19, 고후 3:18, 롬 12:2.
- E.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우리가 활력을 갖고 행동을 취하도록 한다 — 단 11:32하, 행 1:8, 5:20, 13:1-4, 고전 14:31, 비교 겔 3:1-3, 시 68:11-13, 19.

IV.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얻으려면, 반드시 계속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기를 배워야 한다.

- A. 몸의 실재이신 주님께서 그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한다 — 담후 4:22, 엡 1:17, 2:22, 3:5, 16, 4:23, 5:18, 6:18.
- B.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교회생활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실질적인 비결은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이다 — 롬 8:6.
- C.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풍성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살고 신약 사역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길은 계속 우리의 자아를 거절하고 우리의 혼 생명을 잃어버리며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기를 훈련하는 것이다 — 고후 3:3, 6, 16-4:1, 담후 4:22, 빌 1:19, 롬 8:16.
- D.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 수행하는 주님의 일은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나는 일이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영에서 시작하여 다른 사람들의 영으로 끝난다 — 고전 2:4-5, 13, 15, 고후 3:6, 13:3, 비교 시 42:7상.
- E. 우리에게 하나님을 접촉하고 받아들이는 영이 있고, 하나님을 살아 내고 표현하는 혼이 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 내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오락이 되어야 한다 — 요 4:10, 14, 24, 6:57, 눅 1:46-47, 고전 10:31.
- F. 하나님께서 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표현할 목적을 위해서이지, 혼 자체의 누림이나 선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이기적인 누림이 없다. 바울의 사역은 믿는 이들의 누림을 위해 그리스도의 풍성을 은혜로 믿는 이들에게 분배하는 것이었다 — 창 1:26, 2:7, 엡 3:2.
- G. 우리의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혼의 갈망과 선호와 선택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첫 번째 죄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 것, 곧 자아를 만족시킨 것이었다 — 창 3:1-7.
- H. 우리의 자아(우리의 타락한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 사탄과 연결되어 있고 귀신들과 연결되어 있다 — 마 16:21-27.
 - 1. 여호와의 정숙하지 못한 아내인 이스라엘은 악하게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저버리면 온갖 종류의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호 4:1, 엡 4:17-21.
 - 2.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육체 안에 있을 수 있으며 세상 사람들처럼 처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빌 2:1-2, 요일 1:3, 엡 4:17-19, 창 20장, 비교 12:11-13, 13:18.

3.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서 휴가를 가질 수 없다.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 요일 1:3, 비교 시 31:20.

I. 기도는 진정한 자아 부인이다.

1. 사실상 우리는 기도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비록 짧은 기도이지만 이러한 기도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 롬 10:12-13, 갈 2:20.

2.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귀신들을 내쫓기’ 위해) 우리 자신의 노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적용한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 막 9:14-29.

3. 기도하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치물이 되신 것에 대한 이상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화’되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다 — 막 9:2-13.

메시지 2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어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림

성경: 빌 1:19-21상, 2:2, 3:14, 4:6-8, 11-13

- I. 바울은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웠다 — 빌 4:11하-13.
- A. “비결을 배웠습니다.”라는 말은 바울이 새로운 상황, 곧 새로운 환경 안으로 들어갔음을 가리킨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놓일 때마다 그 환경 안에서 사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
 - B.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는 직역하면 “나는 입문하였습니다.”를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이 은유는 어떤 사람이 비밀 단체에 입문하여 그 단체의 기본적인 원칙을 배운 것을 가리킨다.
 - C. 바울은 그리스도께 돌이킨 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입문하였다. 그런 다음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골 3:4), 그리스도를 살고(빌 1:21상), 그리스도를 확대하고(20절), 그리스도를 얻고(3:8, 12), 교회생활을 하는(1:8, 19, 2:1-4, 19-20, 4:1-3) 비결을 배웠다.
- II. 믿는 이들은 비결을 배우고 있는 제자들 곧 배우는 이들이다. 여기서 비결을 배운다는 것은, 믿는 이들이 실제의 영계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의 실지 상태의 모든 실제 안으로 그들을 안내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활 안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 요 16:13, 엡 4:20-21.
- A.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사람의 본으로서 이 땅에서 사신 인간 생활은 그분 자신의 인성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는 생활이었다(요 5:19, 30).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그러한 인간 생활을 통하여 그분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아 사람에게 대한 그들의 관념이 개혁되었다(빌 3:10, 1:21상).
 - B.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인성을 부인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사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고’(히 5:8),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빌 2:8).
 - C.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아니라, 순종의 생명인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 그리스도의 본에 따라 그리스도를 배운다(마 11:29). 제자는 자신의 인간 생명 안에서 신성한 생명을 사는 사람이다.
 - D. “나는 회복 안에서 십팔 년 동안 위치만 니 형제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았다. 내가 니 형제님에게서 본 모든 것이 나를 제자로서 훈련시켜 주는 것이 되었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권, 활력 그룹, 2장, 96-97쪽)
 - E. 주님의 제자들 곧 주님께 배우는 이들인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분의 훈련 아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에 대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킴으로써,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적인 욕망을 거절하게 하고, 현시대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며, 복된 소망 곧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지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게 한다’ — 딤후 3:4, 2:11-13.
 - F. 교회생활 안에 있는 자매들은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연장한 자매들은 주님과 하나 되어 젊은 자매들을 훈련시켜 ‘남편을 사랑하게 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집안일을 잘하게 하며 선하게 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딤후 2:3-5.

- G.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내가 공혹을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가련한 죄인들에게 공혹을 나타내 보이기를 갈망하시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공혹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 마 9:12-13, 미 6:6-8, 막 12:33.

III.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비결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 빌 4:13, 영한 동번 찬송가 564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1072장).

- A.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이었으며(고후 12:2상),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갈망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분, 곧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했다. 이 말은 그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 결론의 말이다.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와 주님의 유기적인 관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인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를 다른 표현 방법으로 말한 것이다.
- B. 과거에 바울은 완전히 유대 종교 안에서 율법 아래 있었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 안에서 발견되었지만, 주님께 돌이켰을 때 율법과 그의 이전 종교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되었다 — 고후 12:2상.
- C. 이제 바울은 그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대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잠기고 그리스도로 적셔져, 그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그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열망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에만, 그리스도는 표현되시고 확대되실 것이다 — 빌 3:9상, 1:20.
- D. 우리는 한 면으로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고(빌 4:11-12), 또 다른 한 면으로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참되고 장중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을 수 있다(8절).
- E. 바울이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인간 미덕들로 삶으로써 무한히 위대하신 그분을 확대하는 것에 적용된다. 이러한 미덕들을 지닌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IV. 우리는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실지적인 길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볼 수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 A. 그리스도 자신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다 — 사 9:6, 요 14:27, 눅 7:50, 롬 3:17, 5:1, 8:6, 15:13, 16:20.
- B. ‘하나님께’는 누군가를 향한 동작을 나타내며, 생생한 연결과 교제의 의미에서 교통을 함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가운데’이다 — 빌 4:6.
- C.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한 결과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하는 것이다. 사실상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기도로 그분과 교통할 때, 우리 안에 주입된 평안인 하나님이다(빌 4:9). 하나님의 평안은 고민에 대한 안정제이고, 염려에 대한 해독제이다(요 16:33).
- D. 평안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순찰하시면서, 우리가 고요하고 안정되도록 지키신다(비교 사 30:15상). 우리가 염려 없는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모든 환경이 좋은 나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배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살며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우리의 운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돕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롬 8:28-30, 마 10:29-31, 고후 4:15-18).

- V.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은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 우리의 머리, 우리의 남편이시다 (영한 동번 찬송가 784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568장)).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도는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는 말로 이루어진다.
- A. 우리는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되는 상황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가져가 그것들에 대해 주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그분은 가장 잘 들어주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
 - B. 우리는 주님과 충분히 대화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부을 때, 주님과 친밀함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주님을 조금 더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시간에 주님을 친밀하게 접촉하는 것이 주님과 통상적인 교통을 갖는 것보다 수백 배 더 낫다. 이렇게 주님을 접촉함으로써 우리는 생명이 자라게 된다 — 시 62:6-8, 56:8, 비교 삼상 1:15.
 - C.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려 본 일이 없고, 자신의 기쁨이나 슬픔을 주님과 한 번도 나누어 본 적이 없으며, 자신의 사적인 일들에 관해 주님과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다면, 그는 주님과 한 번도 친밀한 교통을 가져 본 적이 없고 주님을 전혀 깊이 안 적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통해서만 비로소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릴 수 있다.
 - D. 주님은 우리 문제들 하나하나에 대해 동정하신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짊어지고자 하시며, 우리가 하는 말에 기쁘게 귀 기울이신다. 살아 있는 생명수이신 그분을 누리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반석이신 그분께 말해야 한다 — 민 20:8, 고전 10:4, 출 17:6, 영한 동번 찬송가 248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202장).
 - E. 시편 102편의 제목은 “고통당하는 사람이 지칠 대로 지쳐 여호와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불평이 가장 좋은 기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불평하는 동안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그분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 롬 8:28-29.
 - F. 시편 73편은 추구하는 시편 작가의 진실한 기도를 기록한 것이다. 이 시편 작가는 자신은 고난받는데 악인들은 잘되는 것 때문에 자칫 실족할 뻔하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순수하게 한 것이 헛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물질적으로 잘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온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 시 73:12-16.
 1. 시편 작가는 악인들이 잘되는 것에 관해서 느꼈던 당혹감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얻었다(시 73:17). 먼저, 하나님의 성소 곧 그분의 처소는 우리의 영 안에 있으며(엡 2:22), 또한 하나님의 성소는 교회이다(딤후 3:15).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하며 교회 집회와 사역 집회에 가야 한다.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계시를 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다.
 2. 주님을 추구하는 이는 주님과 정직하게 대화하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감으로써 결국 주님의 빛 비춤을 받아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늘에 주님 외에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 땅에서도 주님 외에 바랄 것 없습니다. 제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도 / 하나님은 제 마음의 반석이시며 제 영원한 뚝이십니다.” — 시 73:25-26.
 3. 하나님께서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에 대해 갖고 계신 의도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누림에서 빛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궁극적인 갈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어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다 — 빌 1:19-21상, 3:7-8, 사 43:7, 고전 10:31, 6:20, 벧전 4:11, 엡 3:16-21.

메시지 3

한 가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속부분들과 하나 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가 뜻을 세우고 행하게 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혼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누림

성경: 빌 1:4, 8, 18, 25, 27, 2:2, 12-13, 17-18, 28-29, 3:1, 4:1, 4, 10, 15-16

- I. 엄밀히 말해서,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관한 책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관한 책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주로 우리의 영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우리의 혼(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있다.
- A.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관한 책이며, 그분을 체험하고 누린 결과는 기쁨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책이다 — 빌 1:4, 18, 25, 2:2, 17-18, 28-29, 3:1, 4:1, 4.
- B. 빌립보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교통하였다. 그들이 복음의 확산에 참여한 것은 사도에게 재정적인 공급을 한 것을 포함했다 — 빌 4:10, 15-16.
1.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은 복음을 확산시키는 생활이고,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며, 개인주의적인 생활이 아닌 단체적인 생활이다. 복음이 확산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더 많이 교통할수록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의 자아와 야심과 선호와 선택은 처리된다.
 2. 우리가 말할 때든지 잠잠할 때든지, 우리의 생명과 생활과 존재와 전 인격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어야 한다 — 빌 1:20, 4:22, 비교 고후 3:3.
- C.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명령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과 더불어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하는 것’이다 — 빌 1:27.
1. 복음의 일을 위해 한 혼이 되고 같은 혼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한 영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어렵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같은 혼이 된 형제였다 — 빌 2:19-21, 비교 30절.
 2. 한 혼이 되려면, 우리의 영이 거듭난 후에 더 나아가 우리의 혼이 변화되어야 한다 — 고후 3:18, 롬 12:2.
 3. 우리가 우리의 애정과 생각과 결정에서 하나가 아니라면, 우리는 한 혼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혼 안에서 하나가 아닌 한, 우리는 복음의 확산을 위한 교통 안에 있지 않은 것이며, 우리의 생활은 복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4.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이 한 영 안에 있고 한 혼을 가질 때, 이러한 하나는 확신을 주고 굴복시키고 매혹적일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것이다.
- D.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없을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혼,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있다. 음식을 억지로 먹지만 음식을 누리지 못하는 어린이처럼, 많은 경우 우리도 그리스도를 체험하지만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
- E.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누림을 갖고 있지 않을까 봐 다소 염려가 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1권, 그리스도를 체험함, 497쪽)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그들의 혼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혼 안에서 하나가 아니며 혼 안에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 빌 2:2.

II. 우리가 혼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한 가지 것을 생각해야 한다. 빌립보서에서 ‘한 가지 것’은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 ‘한 가지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붙잡고 소유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다 — 빌 1:20-21, 2:2, 5, 3:7-14, 4:13.

A.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극도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누리야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굳어진 것(고후 3:14)과 눈먼 것(4:4)과 반역적인 것(10:4-5)과 부패된 것(11:2-3)에서 구출되어야 한다.

B.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른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서로 다르게 생각하게 되어 우리 가운데 불일치가 생기게 된다 — 고전 1:10, 빌 3:8-9, 15, 4:2.

C. 주님의 회복 안에서 한 가지 것, 곧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과 전부로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다 — 골 3:10-11.

1.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서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며 공급해야 할 한 가지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다 — 딤후 1:3-4.

2.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내용은 그리스도이다. 사실상, 세 단계로 된 충만한 사역을 수행하는 그리스도 자신이 신성한 경륜이시다(요 1:14, 고전 15:45하, 계 1:4, 3:1, 4:5, 5:6). 하나님의 갈망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인격만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다(골 1:17하, 18하, 고후 12:2상, 2:10, 3:3).

D. 빌립보 사람들 가운데는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의견 차이가 있었으며(빌 4:2), 사도는 이것 때문에 염려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이 같은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자신의 기쁨이 넘치게 해 줄 것을 부탁했다(2:2).

1. 한 가지 것 외의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한 가지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것을 생각하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의 생각은 교회생활, 곧 몸의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으로 가득해야 한다.

2. 빌립보의 믿는 이들의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서로 다른 수준의 사랑이 있었다(빌 2:2). 그들은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향해 같은 사랑을 가져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조절되고 처리되었다면,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누릴 것이다.

3. 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곧 혼 안에서 연결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더욱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우리는 합당한 혼, 곧 다른 성도들의 혼과 하나인 ‘함께하는 혼’을 가져야 한다.

III. 혼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감정들, 곧 그분의 내면적인 애정과 부드러운 긍휼과 동정을 상징하는 그분의 ‘속부분들’과 하나 되어야 한다 — 빌 1:8.

A.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그분의 속부분들에서 체험하신 것에는 그분의 사랑과 갈망과 즐거움과 느낌이 포함된다 — 시 16:3, 7(각주 1 참조).

B. 바울은 자신의 타고난 내적 존재 안에서 살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속부분들 안에서 살았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속부분들, 곧 그분의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 안에 있어야 한다 — 골 3:12.

C. 빌레몬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분들 안에서 사는 몸의 생활에 대한 그림을 본다 — 문 7, 10-12, 20.

1. 오네시모는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 바울을 통해 구원받았다. 바울은 그를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낳은 아들’이라고 불렀다 — 문 10.

2. 바울이 그의 서신과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을 때, “내가 그(오네시모)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 몬 12.
 3. 바울의 내적인 애정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네시모와 함께 빌레몬에게 갔다. ‘심장’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빌립보서 1장 8절에 나오는 ‘속부분들’과 같다. 이 말은 내적인 애정과 부드러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상징한다 — 골 3:12.
- D. 바울은 그리스도의 느낌을 자신의 느낌으로 취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살았다. 그리스도께서 몸에 대해 가지신 느낌이 몸에 대해 바울이 가진 느낌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다 — 고후 12:15.
 - E.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몸과 동일시한다면, 몸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생활은 완전히 몸의 생활일 것이며, 주님은 오늘날 이 땅에서 그분의 몸의 표현을 얻으실 것이다 — 마 16:24, 엡 4:16.
 - F.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분들 안에서 더 많이 살수록,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우리의 의식은 더 커지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우리의 느낌은 더 강해질 것이다 — 고전 12:26-27, 롬 12:15.

IV. 혼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협력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야 한다. 이러한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가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신다’ — 빌 2:12-13.

- A.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우리에게서는 뜻을 세우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기쁨을 이루어 내시기 위해 우리 안으로 ‘뜻을 세움’을 일해 넣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다. 뜻을 세우는 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 B. 우리는 굴복되고 부활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내주하시는 삼일 하나님과 협력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기를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내주하시는 삼일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가 뜻을 세우도록 하신다.
- C. 우리는 아가 4장 4절에 있는 예표를 통해 우리의 변화된 의지를 볼 수 있다. 이 절은 주님을 사랑하여 추구하는 이에 관해서 “그대의 목은 /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 망대, / 천 개의 작은 방패와 / 용사들의 큰 방패가 모두 걸려 있는 망대 같도오.”라고 말한다.
 1. 성경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이들에 대해 말한다. 그들은 목이 끈은 사람들처럼 완고하고 교만하다(사 3:16). 이처럼 목은 사람의 의지를 가리킨다. 주님은 사람의 의지가 복종하는 것을,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신다.
 2. 목이 망대와 같다는 것은, 추구하는 이가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탄에게 어떤 영향도 받지 않게 될 정도로 그 의지가 하나님에 의해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추구하는 이의 의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데로 이끌렸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
 3. 망대 안에 두어진 무기는 원수가 믿는 이의 의지를 강탈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거두신 승리를 상징한다. 작은 방패들과 큰 방패들은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용사들은 힘을 의미한다.
 4. 요약하면, 아가 4장 4절은 믿는 이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의지에 복종하고, 믿는 이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의지를 수행하기 위해 망대만큼 강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믿는 이는 깨어 경계하고 있으며, 원수가 자신의 복종하는 의지를 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D.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기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순종하는 생명으로 체험하는 것이 노아가 건조한 방주의 예표에 나타나 있다. 방주를 건조하는 것은 우리의 체험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는 실지적이신 현재의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 곧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 빌 2:8, 12-13.

1. 노아는 방주를 공들여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갔는데, 이 방주가 곧 하나님의 구원이었다. 우리에게
게는 실지적이신 현재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되신다.
2. 그리스도의 예표인 방주는 다만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새사람인 교회의 예표이기도 하다 — 창 6:14, 고전 12:12, 엡 2:15-16,
골 3:10-11.
3. 노아는 방주를 건조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홍수로 악한 세대를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세대에서 분별되어 새 시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 창
8:13-19, 뵤전 3:20.
4.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는 실지적이신 현재의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것을 통해 교회를 건축하고 또 교회생활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대환난을
통하여 오늘날의 악한 세대를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고(마 24:37-39, 눅 17:26-27, 살전 5:3)
그 세대에서 분별되어(눅 21:36, 계 3:10) 새 시대인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메시지 4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을 앎

성경: 빌 3:10, 12-14, 요 11:25, 행 2:24, 고후 1:8-9, 계 1:17하-18, 2:8

I.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열망했다 — 빌 3:10.

- A. 빌립보서에서 중심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는 것이다 — 빌 2:2, 5, 3:7-10, 4:10, 13.
- B.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갖는 것은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10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체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 C.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은 우리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탁월함이다 — 빌 3:8.
- D.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그런 다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추구했다. 즉 체험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기를 추구했다.
- E.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알다’라는 말은 ‘체험하다’와 똑같은 뜻이다.
 - 1.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께 참여하고, 그분께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 빌 3:9-10.
 - 2.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처럼 그분을 체험함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 빌 3:8.
- F.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자체를 얻는 것이다 — 빌 3:8, 고후 2:10, 비교 골 2:9, 16-17.
 - 1.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빌 3:7-8.
 - 2.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체험하고 누리며 소유하는 것이다 — 엡 3:8, 비교 계 3:18.
 - 3.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모든 것을 포함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생활이다 — 엡 3:8.
 - a.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상당히 체험하고 얻었지만, 자신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체험했다거나 최대한으로 얻었다고 여기지 않았다 — 빌 3:12.
 - b. 바울은 여전히 목표, 곧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한 정도로 얻는 것을 위하여 전진하고 있었다 — 빌 3:12-14.
 - 4. 바울은 가장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유대교에서의 체험들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과거의 체험 가운데 머물려고 하지도 않았다 — 빌 3:7-8, 13.
 - a. 우리가 과거의 체험을 잊지 않고 그 안에 머문다면, 그 체험들이 아무리 참된 것이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더욱더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된다 — 빌 3:13, 히 6:1상.
 - b.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시고 우리가 소유해야 할 그분의 풍성은 광대한 영토와 같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영토의 가장 먼 곳까지 이르기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었다 — 엡 3:8, 빌 3:13.
- G.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 안에서 발견된 결과이다 — 빌 3:9-10.
 - 1.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로 인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 빌 3:9.
 - 2.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 의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지 못한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알지 못하게 된다 — 빌 3:9상.

II.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알고 체험하기를 열망했다 — 빌 3:10.

- A.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킨 그분의 부활 생명이다 — 엡 1:19-20.

B.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이시다 — 요 11:25.

1.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 있는 이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 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 계 1:17하-18.
 - a. 타락으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음부로 모으기 위해 운행하고 있다.
 - b. 죽음과 음부의 열쇠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구주의 손에 있다 — 계 1:18.
2.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가 이렇게 말한다.” — 계 2:8.
 - a. ‘다시 살아난’은 부활을 가리킨다.
 - b.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다. 그분은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지만, 죽음은 그분을 붙잡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이다 — 행 2:24, 요 11:25.
 - c. 그리스도는 음부로 들어가셨고, 죽음을 통과하셨으며, 죽음을 이기셨고, 승리에 차서 죽음에서 나오셨다. 이것이 부활이다 — 비교 벧전 3:18-22.
3. 부활은 한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장애물들, 심지어 모든 것 중 가장 큰 장애물인 죽음까지도 돌파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 행 2:24, 엡 1:19-20.
 - a. 주님의 부활은 천연적인 영역의 모든 장애물을 깨뜨렸다. 따라서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을 포함하여 어떤 것에도 더 이상 매이지 않으신다 — 비교 요 7:6-8.
 - b. 우리에게 가장 큰 제한은 공간과 시간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제한할 수 없다.
 - c. 죽음은 가장 큰 제한이지만, 부활이 죽음을 정복했다. 그러므로 부활이 모든 것 중 가장 큰 능력이다 — 빌 3:10, 엡 1:19-20.

C. 부활은 죽음에 의해 어떤 손상이나 해를 당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다 — 요 11:25, 계 1:17하-18, 2:8.

1. 죽음은 부활 생명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 — 행 2:24.
2. 죽음은 다른 형태의 생명에는 온갖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이 손상할 수 없는 오직 한 종류의 생명이 있는데, 바로 부활 생명이다 — 요 11:25, 빌 3:10.
 - a. 부활은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에 붙잡힐 수 없는 생명이다.
 - b. 성경의 완전한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 자신이 부활 생명이시다 — 롬 4:17.

D. 그 영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 능력의 실재이시다 — 롬 8:9-11, 고전 15:45하, 요일 5:6.

1.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체험하려면,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음을 보아야 한다 — 고전 15:45하.
2. 부활에 대한 가장 높은 정의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게 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3.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생명 주시는 영으로 변형되신 것이다 — 고전 15:45하, 요 20:22.

E. 부활의 원칙은 타고난 생명이 죽음당하고 그 자리에 신성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 고후 1:8-9.

1. 죽음을 통과하고도 여전히 남아 있는 그것이 부활이다 — 계 2:8.
2. 부활은 죽음 밖으로 나와 천연적인 영역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이다 — 행 2:24.
3. 부활은 어떤 사건이나 환경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를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고후 1:8-9.
4.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분이 부활 안에서 높아져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의미한다 — 롬 6:4-6.
5.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것이다 — 요 6:57, 롬 8:11.

메시지 5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룸

성경: 빌 3:7-10, 요 11:25, 엡 1:19-20, 골 1:24

I.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을 알기를 열망했다 — 빌 3:10.

- A. 그리스도께는 고난과 죽음이 먼저 오고 나서 부활이 뒤따랐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분의 부활 능력이 먼저 오며 그다음에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 뒤따른다 — 빌 3:10.
- B. 우리는 먼저 그분의 부활 능력을 받는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 능력으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할 수 있다.
- C.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두 범주가 있다. 한 범주는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고난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께서 이미 완성하셨다. 다른 한 범주는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한 고난이다. 이것은 사도들과 믿는 이들이 채울 필요가 있는 고난이다 — 골 1:24.
 - 1. 우리는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없지만,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 비교 계 1:9, 딤후 2:10, 고후 1:5-6, 4:12, 6:8-11.
 - 2.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는 구속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요 1:29), 밀알이신 그리스도는 재산출과 건축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12:24).
 - a. 주님은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로서, 부활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많은 밀알 속에 해방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통해 그분의 혼생명을 잃으셨다 — 요 10:11, 15, 17-18.
 - b. 하나의 밀알은 몸의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고난을 완성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많은 밀알들인 우리가 하나의 밀알이 고난받으신 것과 같이 고난받아야 한다 — 요 12:24-26.
 - (1) 많은 밀알인 우리 역시 부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죽음을 통하여 혼생명을 잃어야 한다 — 요 12:25.
 - (2)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 그분을 따르는 것이며, 우리의 혼생명을 잃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생활하는 이 길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다 — 요 12:26.
 - (3) 교회가 생겨나고 증가하는 길은 사람의 영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에 의한 것이다 — 요 12:20-24.
- D. 우리의 변화를 위한 고난과 몸을 위한 고난에는 차이가 있다 — 고후 3:18, 빌 3:10, 골 1:24.
 - 1.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변화를 위한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 2. 빌립보서 3장 10절과 골로새서 1장 24절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한 고난이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임을 보게 될 것이다.
 - 3.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으로 여겼다.
 - 4.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그분의 고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 빌 3:10, 비교 행 9:4-5.
 - 5. 몸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 골 1:24, 빌 3:10.

II.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에 대해 말했다. 이러한 표현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생활의 틀로 취하기를 갈망했음을 가리킨다.

- A.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김, 그리스도를 얻음, 그분 안에서 발견됨, 그분을 앎, 그분의 부활 능력을 앎,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앎은 모두 한 가지,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으로 귀결된다 — 빌 3:7-10.
- B.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의 틀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 빌 3:10.
1. 빌립보서 3장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문제이다 — 빌 3:7, 9, 12-16.
 2.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틀 안에 넣어졌고, 이제 우리는 이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 갈 2:20, 롬 6:3-5.
 3.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며, 우리를 짊어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틀 안에 넣는다 — 요 11:25, 엡 1:19-20.
- C.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 인간 생명을 계속적으로 죽음에 넣으신 그리스도의 체험을 가리킨다 — 요 6:57상.
1.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심으로 주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계셨고 하나님을 사셨다 — 갈 2:20, 3:1, 5:24.
 2. 그분은 항상 자신의 인간 생명을 죽음에 넘기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흘러 나올 수 있었다 — 요 10:10하-11, 17.
 3. 그분은 사시면서 또한 죽고 계셨다. 즉 새 창조물 안에 있는 삶을 사시기 위해 옛 창조물에 대하여 죽고 계셨다. 이것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오는 ‘그분의 죽음’의 의미이다.
- D.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생활의 틀로 취하는 것이다 — 요 10:10.
1.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하는 틀이다. 이것은 밀가루 반죽이 빵틀에 넣어져 그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과 흡사하다.
 2.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 안에 두셨고, 우리가 이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날마다 우리를 형태 짓고 계신다 — 롬 6:3-4.
 3. 우리의 생활은 이러한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곧 신성한 생명을 살기 위해 우리의 인간 생명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 갈 2:20, 고후 4:10-11.
 4.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죽음에 넘긴다면, 우리 안에 또 다른 생명 곧 신성한 생명이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생명이 해방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체험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될 것이다 — 요 10:10하, 요일 5:11-12.
 5.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 안에서 타고난 사람은 죽음당하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며, 자아는 무력하게 된다 — 고후 4:16, 롬 6:6, 마 16:24.
 6.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이 틀 안으로 밀어 넣도록 허락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습으로 형태 지어질 것이다 — 롬 8:28-29.
- E.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룰수록 우리는 아버지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한다 — 요 12:28, 13:31.

메시지 6

뛰어난 부활에 이름

성경: 빌 3:10-14, 롬 6:3-5, 8:11, 계 1:17하-18

I. '뛰어난 부활'은 탁월한 부활, 특별한 부활을 가리키며, 이것은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이 될 것이다 — 빌 3:11, 계 20:4, 6.

- A.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믿는 이는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 살전 4:16, 고전 15:52.
- B. 주님의 이기는 이들은 그 부활의 특별하고도 탁월한 몫을 누릴 것이다. 이 부활 안에서 그들은 왕국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이다 — 빌 3:11, 히 11:35, 26.

II. 바울에게 있어서 삶은 뛰어난 부활이신 그리스도였다 — 빌 1:21상, 3:11.

- A. 바울 안에 사셨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인격이 '뛰어난 부활의 실재'인 분이시다 — 요 11:25, 계 1:17하-18, 2:8.
- B. 뛰어난 부활은 사실상 그리스도라는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뛰어난 인격이다.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옛 창조물에서 나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셨다 — 요 14:3, 20, 히 6:19-20.
- C.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 안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고난의 교통 안에서 그분을 알며,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룸으로써 그분을 알아야 한다 — 빌 3:10-11.
- D.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뛰어난 부활을 이미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았음을 본다. 그는 뛰어난 부활이라는 쫓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를 위로 부르셨다.

III.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목표가 있으며, 이 목표는 뛰어난 부활, 특별한 부활이다 — 빌 3:11.

- A.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도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기를 열망했다 — 빌 3:10.
- B.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는 뛰어난 부활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 빌 1:21상, 3:11, 요 11:25.
- C. 우리는 모두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길에 있다. 뛰어난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목표와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 — 빌 3:11-15.
- D. 뛰어난 부활로 향하는 길은 부활의 과정이다 — 롬 8:11.
 - 1. 이 과정은 우리가 침례 받은 날에 시작되었고, 탁월한 부활에 도달할 때 끝나쳐질 것이다 — 롬 6:3-5.
 - 2.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동안 우리는 부활하는 과정에 있다. 결국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이 부활할 것이다 — 살전 5:23.
 - 3. 우리는 뛰어난 부활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이 과정에 있을 것이다 — 빌 3:11.
- E.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것은 뛰어난 부활에 도달하는 것이다. 뛰어난 부활에 이르려면 상을 얻을 수 있도록 경주에서 승리해야 한다 — 고전 9:24-26, 딤후 4:7-8, 히 12:1-2.

IV.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룬 결과는 우리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 빌 3:10-11.

- A. 죽음은 우리가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 위한 조건이다 — 빌 3:11.
- B. 뛰어난 부활에 도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룬 결과이자 산물이다 — 빌 3:10.
- C.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분의 죽음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 롬 6:6, 갈 2:20, 빌 3:10.
- D.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있을 것이고,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그리스도를 누릴 것이다 — 요 11:25, 엡 3:8, 빌 1:8, 19, 21상, 2:5-8, 3:12.
- E.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면서 우리 자신을 그분의 죽음의 모양과 같은 형태가 되도록 허락한다면, 그 결과로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이 점차로 부활할 것이다 — 빌 3:10-11.

V.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의 중요한 질문을 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 시대에 뛰어난 부활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경주만 하면서 오는 시대에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랄 수 있을 뿐인가?

- A. 우리가 뛰어난 부활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오는 시대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 시대에도 이 목표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 B. 우리는 우리의 생애 중에 뛰어난 부활에 도달하기를 힘써야 한다 — 빌 3:11.
- C. 로마서 8장 11절은 우리가 이 시대에 뛰어난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1. 이 절은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우리 존재에서 죽어 가는 바로 그 부분 곧 우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
 2. 로마서 8장 11절에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은 병이 낫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온 존재를 적시시도록 허락해 드린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3. 그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실질적이고도 실지적인 방식으로 뛰어난 부활을 우리 존재 안으로 일해 넣고 계신다.

VI. 뛰어난 부활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가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가리킨다 — 살전 5:23.

- A.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죽은 영을 부활시키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계속하여 우리의 혼과 우리의 죽을 몸을 부활시키시고, 결국 우리의 온 존재—영, 혼, 몸—가 그분의 생명에 의해,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옛 존재에서 완전히 부활하도록 하실 것이다 — 엡 2:5-6, 롬 8:6, 11.
- B.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생명의 과정이며, 상으로서 주어지는 뛰어난 부활에 이를 때까지 해야 할 경주이다 — 빌 3:11-14.
- C.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룬다면,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이 점차로 부활할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부활의 과정이다.
- D.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는 것에 의해서만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 빌 3:11, 갈 2:20.

VII.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룸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러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전진하시는 유일한 길이고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시는 유일한 길이며,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고 주님을 다시 모셔 오는 유일한 길이다 — 빌 3:10-11, 마 16:18, 계 19:7-9상, 22:14, 20.